

사랑하는 목사님과 성도님들께,

머누 머네<sup>약</sup> 한 사람 | <sup>백행</sup> 그동안 평안하셨어요? 캄보디아의 정지웅/은영 선교사입니다.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곳 캄보디아에서 건강히 지내며 학교와 교회를 통해 만나고 맡겨주신 한 사람 한 사람과의 시간을 준비하고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. 저희 두 사람의 대화도 대부분 섬기는 지체들과 예배에 관해서 이고, 저희를 위해 따로 짚아가는 시간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,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더욱 올 인 <sup>All In</sup> 해야 할 부족함들은 깨닫고 보게 하십니다.

### 일어서는 젊은이들 <sup>Rising generation</sup>

저희 부부가 대학에서 가르치며 매주 만나는 학생들은 한 학기에 약 150명 정도입니다. 그렇게 지난 7년을 생각하면 그동안 많은 이들을 만나고 가르쳤습니다. 많은 이들이 사회인이 되었고,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선생이 되기도했으며,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부모가 된 이들도 있습니다. 시간을 통해 한 인생이 성장하고 변화해 가는 것을 보는 것은 기쁘고 값진 일입니다. 킬링필드의 참혹한 역사 이후에 일어나는 새로운 세대, 지금 저희가 만나는 20대 젊은이들은 이후 이 나라의 핵심 인물들이 될 것이기에, 그들 앞에 한 명의 크리스찬으로 선다는 것,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인가 나타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. (저희가 가르치는 두 대학은 국립대학과 터키에서 세운 무슬림 대학으로 전도가 금해져있습니다)

시간을 두고 깨닫고 배우는 것이 있다면, 한 사람을 만나고 제자 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, 또 나는 최선을 다하나 그 때는 때때로 가까이 오기도, 또 몇년을 기다려 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. 지난 수요일 수업을 마치고 교실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. 이 젊은 배우는 세대 <sup>young learning generation</sup> 들이 이 나라의 정직하고 능력있는 리더가 되길,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니엘과 같이 각처에서 무릎꿇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.



## 비밀을 간직한 홍 Hong

한달 전 쯤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던 한 형제 동역서신 no.19, 홍 Hong 에게 만나고 싶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.

캄보디아의 서울대라하는 프놈펜왕립대학교 Royal University of Phnom Penh 의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, 정작 자신이



누구인지 잃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. 이 일 저 일 시도했지만 마음은 계속 안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. 사람들은 자기의 세계와 길을 걸어갈 뿐 그 안에서 나의 미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.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말이든 편견없이 들어줄 사람은 한 사람 뿐이다 생각되어 용기내어 연락했다는 것이었습니다. 반갑고도 조심스러웠습니다. 약속한 날 이 형제를 만나 오랜시간 함께했습니다.

홍은 저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. 3년 전 쯤 예배시간에 찬양을 부르던 중 갑자기 복받치는 무엇인가를 참지 못해 벽을 잡고 대성통곡하며 울었던 형제였습니다. 그때 분명

성령께서 믿음 없는 홍 안의 무엇인가를 부수셨다 breakthrough 여겼었습니다. 그리고 홍은 얼마 후 교회를

떠났었습니다.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번에 다시 만나게 하였고, 지금 다시 매주 예배를 참석하고 있습니다.

순박한 야생마 같은 이 형제를 부수고 들어가실 분은 오직 성령님 한 분이십니다. 예배에 정착하고 예수님 안에서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.

## 티암맛 Tiammat

작년 11월 전도집회가 있었던 뽏삿 Pursat Province 지방의 사랑교회 Lohim Church 사역자인 티암맛 Tiammat 의 성경

공부를 돕고 있습니다. 캄보디아 내의 소수민족인 무슬림 찰 Cham 족 출신으로, 예수님을 만나 개종한 후 가족



안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, 여러 기도와 도움의 손길을 거쳐 지금은 뽏삿 지방의 시골 무슬림 마을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형제입니다. 평소에는 농사일을 하고, 사모는 여러 일을 하고, 또 주중에 동네 아이들을 모아 영어와 성경을 가르치고 주일에는 예배를 인도합니다.

뽏삿에서 프놈펜까지는 차로 약 4시간 반 거리입니다. 그래서 일년에 두 세번 좋은 때를 정해 한 달정도 매주 내려오며 정지웅 선교사와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. 처음 이 형제의 제자양육을

부탁받았을 때는 저희 시간을 쪼개어 나눈다 giving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, 지금은 말씀으로

교제하는 시간이 오히려 선교사에게 복된 시간임을 깨닫습니다. 말씀의 홍수 속에 사는 사람들은

열 개를 주어도 한 개를 취하지만, 갈급함으로 달려오는 타암맛은 다섯개를 주어도 열 개를 취해갑니다. 그리고 돌아가 다시 열 사람, 스무 사람에게 나누어줍니다.

이번 9월 한달 동안 매주 이틀씩 제자훈련을 하게 됩니다. 티암맛의 오토바이로 오가는 길의 안전을 지켜주시고, 말씀을 사모하여 먼 길 오는 그 마음,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길 소원합니다. 돌아가 그곳의 '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' 별과 같이 빛나리라 (단 12:3) 되기를 소원합니다.

네, 그럴 수 있습니다 자, 크눔 반 | Yes, I can

정지웅 선교사가 지난 3월부터 프놈펜의 한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. 모두 지방에서 주로 농사를 짓는 분들로 배움은 적고 덜 세련 된 분들이지만, 자신의 집을 기꺼이 예배처소로 개방하고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귀한 일꾼들입니다. 평소에는 자신의 생업의 일을 하면서, 한 달에 한 주씩 프놈펜의 신학교에 모여 합숙하며 부족한 성경지식과 목회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. 정지웅 선교사는 그 중 한 과목인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습니다.



얼마전 사도행전 7장 스테반의 순교에 대해 나누고, 신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. '여러분 중에 스테반과 같이 주를 위해 돌을 맞을 수 있으며, 또 돌 던지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?' 잠시 고요해졌습니다. 그리고 한 여자 전도사님이 손을 들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.

'자, 크눔 반' 네, 그럴 수 있습니다 | ㄴ ㄹ ㄴ ㅁ ㅂ

(그 진실된 눈을 잊지 못 할 것입니다. 주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)

한 걸음 기다려 함께 One step slow, Together

작년 태국선교에 이어 제자교회는 올 8월에 베트남으로의 두번째 해외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. 팀원들은 각자 여권을 만들고 재정을 마련해야하며, 학교와 직장의 휴가를 맞추고, 가족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쉽지 않은 결단과 헌신을 요하는 것입니다.

그러던 중 팀원 중 하나였던 쓰레이뷔 <sup>SreyVy</sup> 자매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. 집에 도둑이 들었던 것입니다. 부모님과 형제들의 가족 소유 오토바이 세 대를 도둑 맞은 것입니다. 보통의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오토바이는



자동차와 같은 의미의 재산이요 생업 수단이기에,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. 그런데 낙심하고 주저앉을 것 같았을 쓰레이뷔가 주일에 오토바이를 빌려 교회에 왔습니다. 주일학교 교사의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. 그 우직한 모습이 정말 대견했습니다. 한 지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구나 감사했습니다. 교회는 일주일의 기도시간을 갖고 구제헌금을 모아 자매를 도왔습니다.

그 일로 선교팀은 모여 출발 일정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. 사실 쓰레이뷔가 아직 여권이 준비되지 못했었기에 이번 선교여행에서 빠져야하는 상황이었었는데, 팀원 모두는 그를 기다려 함께 가기로 한 것입니다. 그리고 일정을 9월 17-20일로 확정 변경 하였습니다. 한 걸음 기다려 함께 가는 모습은 공동체를 한걸음 더 성숙하게 하였습니다. 쓰레이뷔의 믿음을 더욱 단단히 해주시고, 모두가 함께 국경을 넘게 해 주시길 소망합니다. 경비도 채워지기를 바랍니다.

### 손을 놓아 얻는 <sup>earning by losing</sup>

2012년 교회를 시작한 후 많은 이들을 양육하며, 동시에 선교사 리더쉽 시대 이후의 현지인 리더를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. 헌신되고 준비된 사역자를 보내주실 수 있지만, 시간은 좀 걸려도 교회에서 자라 교회를 사랑하는 이가 사역자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사역의 가치와 초점을 이어갈 수 있는, 자신이 양육받은 데로 또다른 이와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신실한 일꾼을 기다립니다. 그렇게 지난 5년의 교회사역을 보면 사역자 감으로 여겨졌던 지체가 두 세명 있었습니다. 그렇게 품었던 첫 번째가 2년전 한국으로 유학을 떠나 지금 서울과학기술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찌보완 <sup>Chivon</sup> 형제입니다. 그동안 좋은 교수님과 공동체 안에서 잘 배우고 신앙 훈련도 받아, 이제 곧 석사과정을 마치고 내년 3월에 캄보디아로 돌아오게 됩니다. 두 번째 사역자 감으로 여겼던 형제가 지금 이곳에 있는 우덤 <sup>Oudom</sup>입니다. 목회자 자녀로 나이는 어리나 <sup>22세</sup> 신앙의 뿌리가 단단하며, 전문성과 영성, 정직과 부지런함의 역량을 균형있게 갖춘 재목입니다. 이 형제를 얼마전 상담을 하였고 함께 기도의 시간을 통해 내년 초 한국으로 대학원 유학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. 교회를 보면 또한번 가장 좋은 일꾼을 보내는 일입니다.

사역에 있어 ‘한 사람’이 중요합니다. 하지만 ‘한 사람들’ 중에 더 중요한 한 사람이 ‘한 리더’입니다. 그래서 선교사는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한 명의 리더를 양육하는데 쏟게됩니다. 하지만 선교사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천천히 만들어가시기도 하십니다. 그분을 신뢰하기에 기쁘게 그 길을 돕게

되었습니다.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 명의 리더는 성장하고, 한 명의 선교사도 성숙해지니 ‘잃음이 아니라 얻음 *earning by losing*’이라 믿습니다. 또한 하나님께서 이들을 저희보다 더 귀한 캄보디아 사역자로 삼으실 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.

온유와 주언이 *Anne and John*

처음 캄보디아 왔을 때 둘 다 유치원생이었던 온유와 주언이는 이제 7학년 6학년이 되었습니다. 기억하는 대부분도 캄보디아에서의 생활입니다. 그런데 얼마전 온유가 길에서 걷던 중 자기도 모르게였는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. ‘나도 (선교사자녀 말고) 평범하게 살고 싶다’. 또 어느때인가 주언이가 뜬금 없이 이렇게 물었습니다. ‘아빠가 선교사가 아니면 우리는 부자였을까?’

단순한 생각으로 한 말이었지만 이 두 아이의 말을 저희는 오래 담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언젠가 둘 다 성인이 되어 이 선교편지를 읽게 된다면 그때의 온유 주언이에게 짧은 말을 남깁니다.

‘온유야 주언아, 사랑해’

시간이 많이 지나 저희가 섬겼던 이들이 저희는 잇는다해도 그들 안에 예수님이 남을 수 있다면 저희의 상급은 이미 다 받은 것이라 믿습니다. 저희의 소식이 또한 교회의 기쁨이요 하나님께는 좋은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며, 모든 분들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하시길 기도드립니다.

기도제목:

1. 한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데 쓰임받는 선교사 되고, 학교와 교회에서 맡겨주신 이들을 잘 섬기길
2. 제자교회의 예배(어린이, 장년)를 더욱 깊게하시며,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단단히 서가길
3. 티암맛 9월 성경공부와 17-20일의 V국 선교여행을 은혜가운데 다녀올 수 있도록
4. 온유 주언이가 기쁘고 총명히 자라며, 아이들 학비를 돕는 후원자가 생기길

2017년 9월 1일  
정지용/은영, 온유, 주언 올림

